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바란다 _ 연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心의 기구로 태어나길

culture 'art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전면적 개편에 따라 문화예술의 위상 변화라는 새로운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정책, 지원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존재하는 동안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이다. 문화예술과 예술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예술을 창조하는 모든 이들은 다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 근원에서부터 말이다.



유인춘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중앙대학교 교수

창작과 지원, 그리고 예술위원회

2005년 8월, 문화예술인들의 기대 속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했다. 예술위원회의 출범은 지난 1973년이래 30여 년 간 한국문화예술 진흥의 중심에 있었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전면적 개편과 그에 따른 문화예술의 위상 변화라는 새로운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예술위원회의 탄생은 현 우리 예술계의 문예지원의 방향과 그에 따른 예술인들의 창작태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문예진흥원의 입지는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예술행위의 존립여부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예진흥원은 직접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다.

1973년 이후 지난 30여 년간 문예진흥원에서 문화예술계에 지원해 준 기금은 무려 5천억 원이 넘는다. 예술의 여러 장르 중 연극계만 보더라도 이러한 물질적 지원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이들이 연극은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질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연극, 그리고 공연예술은 영화를 비롯한 대중예술과 달리 그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쪽이 지배적이었다. 사라져가는 연극을, 그래서 공연이 없는 도시의 문화환경을 우려하면서 지원은 시작될 수 있었다. 국가와 기업의 문예진흥, 문화자원이라는 이름이 힘을 얻는 것도, 그리고 문예진흥원의 존재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가능했다.

그리고 지원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원대상은 매우 다양해졌고 지원액도 늘어났다.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축제란 이름으로 많은 예술제가 생겨났고, 특히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마다 열리는 행사들도 많아졌다. 예술행위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역설적으로 그만큼 지원의 위력도 커졌다. 이제 미국과 프랑스 정부의 연간 지원금액이 얼마고, 우리가 얼마라고 말하면서 비교우위를 따지는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또한 문화예술현장에 종사하거나 관계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지원의 효율성을 놓고 셀 수도 없는 논쟁을 벌여오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 지원장르의 문제, 지원 방식의 문제, 지원의 기준, 심의위원, 지원금액 등등 직접적인 지원 앞에서 그들은 공정성의 시비에

앞서 격렬하게 논쟁했고 그에 따른 시뒤틀거리도 끊이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그만큼 예술계가 어렵다는 사실의 간접표현이기도 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힘의 기구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대다수 문화예술인들이 예술위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는지, 또 위원회의 좋은 점이 무엇이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물론 지원의 문제들도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사항이다.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정책, 지원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은 예술위원회가 존재하는 동안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원의 확대가 아니다. 지원금의 확대가 작가의 자유와 작품의 우수성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왔다.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작금의 지원형태에 대하여 논의해왔던가? 작가와 작품의 존재방식조차 바르게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편의로 이루어진 1년 단위의 일회성 지원형태는 불가피하게 분배식 지원과 자칫 일회성의 소모적인 지원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 후의 작품에 대한 평가이다. 지원의 형태가 소모적일수록 작품의 수준은 추락하고 만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경험과 실천이 있어야 하는지 모른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년간 지원이나 실연심사 등도 그토록 많은 이들이 주장해왔던 장기 지원과 심의방식의 변화를 실천으로 보여준 사례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그 작은 사례도 실천의 시작은 쉽지 않다. 관행의 두터운 벽을 깨야 하고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기에 향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어쨌든 예술위원회의 출범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초예술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회생시키기 위한 예술계와 정부의 공동 노력 속에서 얻어진 조직적 성과물이라는 점이다.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의 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동안 말의 성찬만 있었을 뿐 실천하지 못했던 바람들을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다.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부터 던지고 나아가야 한다. 질문은 간단하다. 문화예술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서 묻는 역할은 즉 존재방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려운 물음이 아니다. 물론 예술위원회에게만 던지는 질문도 아니다. 예술을 창조하는 모든 이들은 다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 근원부터 말이다.

그리고 예술위원회의 위원들은 각 예술장르의 대표, 공동의 대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그들은 현장 예술인 출신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에 위원들은 특히 자신을 버려야 할 것이다. 위원의 임기동안 창작의욕을 접고, 스스로를 정리해야 한다.

이제 예술인들도 지원을 받는 수혜자가 작가와 작품이 아니라 관객과 시민이 되어야 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작품 또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을 위해 존재할 뿐 힘의 기구가 아니다. 다시 한번 예술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우리의 토론은 근원의 인식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